

타계 20주년이 된 건축가 김수근

빛과 벽돌로 시를 쓰다

건축가 故 김수근이 간암으로 타계한 지 20년이 흘렀다. 그가 한국 건축계에 남긴 족적은 가히 절대적이다. 매년 가장 획기적인 작품을 발표한 건축가를 선정하는 '김수근건축상'은 국내 건축계에서 그의 입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단서. 한국의 건축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김수근. 그렇다면 물겠다. 당신은 과연 그가 남긴 223개의 건축물 중 몇 가지나 알고 있는가.

에디터 유소라 자료 협찬 아르코 미술관(02-760-4893)



Photo by Osamu Murai

서울에서 김수근의 자취를 더듬어보다

먼저 건축가 김수근에 대한 나의 무지가 얼마나 깊었는지에 관한 고 해부터 해야겠다. 나는 올림픽공원에서 10분 거리에 산다. 매일은 아니지만, 날이 좋은 주말이면 집에서 입는 트레이닝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 공원을 슬렁슬렁 돌곤 한다. 집에서 출발해 공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본래의 목적보다 공연장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체조경기장이다.

그 경기장을 중심으로 양옆에는 수영장장과 자전거경기장이 위치해 공원을 찾을 때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지나게 된다. 수년 동안, 수십 번쯤 그 앞을 지났건만(심지어 공연을 보기 위해 그 안을 들어가기도 했던) 그 건축물을 한 번도 찬찬히 '감상' 해본 적이 없었다. 경기장을 '건축물'이라고 의미를 확장시키지도 못했던 불과 최근까지 그 경기장들이 한국 건축의 대부 김수근 선생의 작품인 줄 전혀 몰랐던 것이다! 나의 무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역삼동 회사근처에서 가장 익숙한 건물 중 하나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이 호텔이 나에게 그 회사 위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랜드마크'였지 '김수근'이라는 이름과 함께 각인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건축가 김수근'은 화가 이중섭이나 수필가 전해린이 내게 주는 느낌처럼 앞선 세대의, 특출난 인물이라는 희미한 목격함으로만 다가왔지 내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 줄 몰랐던 것이다. 건축가는 죽어서 이름뿐 아니라, 후세대의 일상에까지 스며드는 철학을 남긴다는 사실 역시. 머릿속에 서울의 지도를 그리고 내가 올는 다음의 경로를 따라가보자.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대학로다. 이 일대는 선생의 작품이 무려 7점이나 늘어선 그야말로 '김수근 건축 갤러리'다. 김수근 타계 20주기 전시 <지금 여기: 김수근> 전시 개최된 아르코 미술관(구 문예진흥원 미술회관)과 아르코 예술극장을 시작으로 샘터 사옥, 국제협력단 건물(구 해외개발공사), 서울대병원 안에 위치한 간 연구동 등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에 모여



있다. 조금 더 걸으면 김수근의 역작 가운데 하나인 공간 사육이 나오
고, 지하철로 두 정거장 거리에 장충동 경동교회가 있다.

대학로엔 유독 붉은 벽돌 건물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 선생의 작품
을 흉내 낸 것. 장충동 즈음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면 남산의 상징인 타
워 호텔과 거대한 콘크리트 처마가 보는 이를 압도하는 자유센터 앞
에서 멈춰서게 된다. 자유센터는 건축 당시 반공연맹(현 한국자유총
연맹)의 본부였던 곳으로 군사정권의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
된 건축물이라는 비판 어린 목소리에 한때 파괴시켜야 할 구시대적
유물로 취급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외국 유명 건축가들이 탄복할 만
큼 뛰어난 건축미를 지닌 서울의 보물이라고 할 만한 건물이다. 동쪽
으로 향하면 선생의 처녀작 워커히 호텔의 힐탑바와 워커히 더글라스
호텔이 있다. 그곳에서 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하면 앞서 거론한 올림
픽공원 안의 경기장들(실내수영장, 자전거경기장, 체조경기장)이 있
고, 가까운 곳에 잠실 실내 체육관과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다. 좀더
남쪽으로 가면 서초동의 법원 종합청사과 서울교대 도서관 및 과학관
역시 선생의 작품이다.

그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서울대학교 예술관, 문화방송 사옥, 목동
10단지 아파트까지 선생의 작품이 이어진다. 마치 지하철 정거장 이
름을 열거하듯 나열한 김수근 건축 기행 리스트에는 아직 언급하지
못한 건축물이 훨씬 더 많다.

무심코 지나쳤던 건축물들을 새삼 찬찬히 '감상' 하고자 한다면,
요즘처럼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는 여름철 아침, 저녁이 좋다. 김수근
건축물의 상징인 '붉은 벽돌'에는 벽돌 요철이 삐죽삐죽 솟아 있는
데, 그 요철이 빛을 받아 벽에 그리는 그림자들의 변주를 제대로 감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 당시부터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벽돌담에 얽힌 담쟁이 덩굴은 건축가의 낭만적 기질을 짐작할 수 있
게 한다.



1 일본인 사진가 오사무 무라이(Osamu Mural)가 찍은 김수근의 생
전 모습. 자신의 작품인 올림픽 주경기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그
는 결국, 올림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2 1980년의 경동교
회. 담쟁이 덩굴이 드리워진 노출 콘크리트는 당시에는 파격적인 디
자인이었다. 3 1977년의 아르크 미술관(구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그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은 빛과 벽돌이 짓는 시"라고 말했다.
4 자유센터. 거대한 콘크리트 처마가 보는 이를 압도하는 이 건축물
은 한때 파괴시켜야 할 구시대적 유물로 취급된 적이 있었지만, 뛰어
난 건축미를 지닌 서울의 보물이다.



Photo by Jin Sung Jae



Photo by Osamu Murai



3

1 김수근의 자택. 공간 사육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생전의 그는 '세이(洗耳·더럽혀진 귀를 씻어 깨끗이 한다는 의미)장'이라고 불렀다. 2 1977년의 마산 양덕성당. 1977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부인 플라츠(J. Platz) 신부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이 성당은 '화해와 속세의 인간공존체를 위한 공간'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3 건축가 김수근이 생전에 직접 그린 드로잉.

건물이 아닌 공간(Space)을 창조한 건축가

건축가 김수근은 건축을 '빛과 벽돌이 짓는 시'라고 정의했다. 그만큼 벽돌에 관한 그의 애정이 남달랐는데, "아무리 급해도 벽돌은 한꺼번에 쌓지 못한다. 때문에 한 장 한 장 단정히 쌓지 않으면 무너지거나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벽돌이 지닌 조소성은 무한히 인간화되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말에서 암시하듯, 그의 건축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그 무엇이다. 이를테면 그는 공간을 3가지로 나누었다. 제1의 공간을 'Primary Space'라는 생활적·생리적 공간으로 나누었고, 제2의 공간은 'Secondary Space'라고 불렀는데, 예를 들어 공장의 생산적 공간, 학교 등의 교육적 공간, 사무실의 업무 공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간에게는 생리적 공간과 생산적 공간뿐 아니라, 제3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Ultimate Space'로 불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공간은 낭비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집단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공간 중, 선비들이 책을 읽으며 사유했던 '문방(文房·서재)', 자연에 함몰되는 '정자' 등이 이 공간에 속한다. 이러한 개념과 연결되어 나온 것이 'Space'라는 단어다. 건축가 김수근에게 공간은 '비움(Emptiness)'의 상태이고, 건물의 벽은 궁극적으로 비움의 상태, 즉 공간을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중요한 것은 벽이나 재료, 집기, 비품 등이 아니라 바로 '내부 공간'이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건축 철학을 이해하고 본다면, 특별한 입구 없이 공간과 공간이 서로 연결된 아르코 미술관과 정문이 길가가 아닌 옆으로 살짝 비껴서 있으며, 작고 큰 방들(공간)이 미로처럼 복도와 계단을 통해 연결된 건축사무소 공간 사육, 뚜껑 없는 예배당의 경동교회(현재는 용도가 변형돼 지붕이 덮여졌다) 등 그의 건축물에 숨은 의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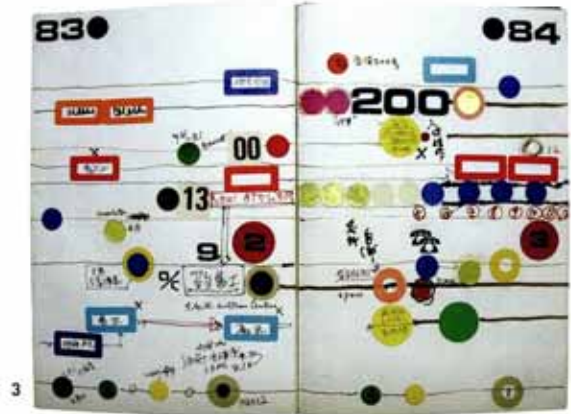


르네상스 맨이라 불리던 종합예술가

김수근 선생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건축가 김영준에게 선생의 생전 모습을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간결한 한마디였다. “한량이었지, 뭐.” 이 제자가 말하는 한량이란, 흔히 선생을 부르는 단어, ‘르네상스 맨’의 한국식 표현일 터.

건축가 김수근은 예술극장을 설립해 김덕수 사물놀이패, 병신춤 공옥진 등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예술가들을 발굴하기도 했다. 자금난으로 폐간의 위험을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끝까지 명맥을 유지한,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잡지 <공간>을 창간한 것을 봐도 그는 확실히 건축가의 범위를 넘어선 예술적 안목과 기질을 가진 종합예술가였다. 실지로 그는 “건축가 중에서 시, 소설을 모르는 놈은 별 볼일 없다”고 단언한 적이 있다. 그는 모 아파트의 광고처럼 “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조차 깊은 성찰을 드러낸다. “나의 집은 자궁(子宮)입니다. 내 집은 자궁이고 자궁의 집은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집은 가옥이며 집의 집은 환경입니다. 집을 주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환경입니다. 환경이 철학적으로는 공간이 되겠는데, 공간은 집의 집의 집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노면 포스터는 그의 나라 영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혹은 생명공학자(물론 후엔 사기꾼으로 전락했지만)가 영웅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생소한 일. 미국 <타임>지에서 ‘한국의 로렌초 메디치(Lorenzo de’ Medici: 르네상스기의 시인)’라고 추켜세울 정도로 경탄할 만한 건축가라고 해서 그를 영웅시하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은 좀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도 아직 멀었다면, 적어도 올림픽경기장을 지나면서, 타워 호텔을 지나면서 외국인들에게 ‘이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이라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1 1977년의 올림픽 주경기장, 조선 백자의 곡선미와 단순미를 조화시켰으며, 원형 지붕과 2층 발코니 등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설계였다. 2 1971년의 공간 사육, 담쟁이 덩굴로 덮인 공간 사육은 가장 김수근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벽돌로 쌓은 정문은 길가가 아니라 옆으로 살짝 비껴서 있고, 작은 방들이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다. 3 김수근의 스케치 노트, 그는 2000년까지의 계획을 세우놓을 정도로 계획적인 사람이었다.